



베네수엘라 '방망이'로 美에 설욕



베네수엘라가 야구 중추국 미국을 극적으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월드베이스클래식(WBC)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베네수엘라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6 WBC 결승에서 미국을 3-2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8강 토너먼트에서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8-5로 꺾은 베네수엘라는 준결승에서 이탈리아를 4-2로 물리친 데 이어 미국마저 넘어서며 감격스러운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주관하는 WBC는 이번이 6번째 대회로, 베네수엘라가 결승에 진출한 건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이날 결승은 미국이 지난 1월 군사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것과 맞물려 '마두로 디비'로 불리는 등 정치적 관심까지 더해졌다.

다만 대부분 MLB에서 활동하는 베네수엘라 구성원들은 결승전을 앞두고 정치적 질문에 함구했다. 승부는 평행한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마두로 디비'서 3대2... 첫 우승
중추국 美에 뼈아픈 패배 안겨
9회 수아레스 천금의 결승타
황금 투수진 美타선 뽐뽐 뉘어

베네수엘라 선발 투수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미국 강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로드리게스는 3회말 미국 선두 타자 브라이스 투랑(밀워키 브루어스)에게 우전 안타를 내줄 때까지 출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반면 베네수엘라 타선은 미국 선발 투수 놀런 매클레인(뉴욕 메츠)을 상대로 점수를 짜냈다.

베네수엘라는 0-0으로 맞선 3회초 선두 타자 포수 살바도르 페레스(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우전 안타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에틀렌타 브레이브스)의 볼넷으로 1사 1, 2루 기회를 만들었다.

이후 매클레인의 폭투로 1사 2, 3루가 됐고, 마이클 가르시아(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중견수 희생타를 치면서 균형을 잡았다. 베네수엘라는 1-0으로 앞선 5회초 공격

에서 추가점을 뽑았다. 선두 타자 윌리엄스 아브레우(보스턴 레드삭스)가 매클레인의 2구째 한 가운데 직구를 공략해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며 2-0으로 달아났다.

베네수엘라는 이후 볼펜을 총동원했다. 5회 우완 에두아르도 바사르도(시애틀 매리너스), 6회 우완 호세 부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7회 좌완 앙헬 세르파(밀워키 브루어스), 우완 안드레스 마차도(오릭스 버펄로스)를 차례로 투입하며 두 점 차 리드를 이어갔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쉽게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8회말 2사에서 마차도가 보비 워트 주니어(캔자스시티 로열스)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하며 추격의 여지를 줬다.

이후 마차도는 후속 타자 브라이스 하퍼(필라델피아 필리스)에게 중월 동점 투런 포를 헌납해 2-2 원점이 됐다.

경기 종료까지 아웃카운트 4개를 남기고 동점을 허용한 베네수엘라는 9회초 공격에서 다시 힘을 냈다.

선두 타자 루이스 아라에스(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바린 투수 개릿 휘틀록(보스턴 레드삭스)을 상대로 볼넷으로 출루

했고, 대주자 하비에르 사노하(마이애미 말린스)가 2루 도루에 성공해 무사 2루 기회를 만들었다.

이후 에우헤니오 수아레스(신시내티 레즈)가 휘틀록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7구째 가운데 몰린 체인지업을 받아쳐 좌중간 적시 2루타를 폭발, 3-2로 다시 앞서갔다.

베네수엘라는 9회말 마지막 수비에서 다니엘 팔렌시아(사카고 컵스)를 마무리 투수로 내세웠다.

팔렌시아는 카일 슈워버(필라델피아 필리스)를 헛스윙 삼진, 건너 헨더슨(볼티모어 오리올스)을 내야 뜬 공, 로빈 앤서니(보스턴 레드삭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이날 베네수엘라 선발 로드리게스는 4⅓이닝 1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수아레스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으나 1안타가 9회에 나온 결승타였다.

미국은 팀 3안타 빈공 속에 고개를 떨궜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우승엔 KBO리그에서 활동했던 원순투수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 리카르도 산체스도 힘을 보탤다.

글: 사진=연합뉴스

박철우, 감독대행 꼬리표 떼나

우리카드 임시 사령탑 맡아
14승4패... 준PO 진출 지휘



박철우(41사진) 감독대행이 남자 프로

배구 우리카드의 봄 배구 진출을 견인하면서 꼬리표를 떼고 정식 사령탑에 오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철우 감독대행이 이끄는 우리카드는 17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 2025-2026시즌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3-0으로 완승하며 준플레이오프(준PO) 진출을 확정했다.

우리카드가 봄 배구에 나서는 건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랐던 2023-2024시즌 이후 2년 만이다.

올 시즌 우리카드의 봄 배구 진출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우리카드는 작년 12월 30일 사퇴한 마우리시오 파에스 전 감독이 지휘한 18경기에서 6승12패(승률 33.3%)에 그쳐 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파에스 전 감독의 뒤를 이어 박철우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으면 서 팀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박철우 대행은 취임 후 12경기에서 9승(3패)을 수확해 75%라는 놀라운 승률을 작성했다.

5라운드 중반이던 지난 달 6일에는 선두를 달리던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을 3-0으로 완파하는 '코트 반란'을 일으킨 데 이어 같은 달 10일 인천 원정에서 2위 대한항공마저 3-1로 무너뜨렸다.

12위 팀을 잇달아 잡은 우리카드는 여세를 몰아 3위였던 OK저축은행을 3-0으로 꺾어냈고, 4위였던 KB손해보험도 폴세트 대결 끝에 3-2로 제압했다.

우리카드는 톱4에 포진했던 네 팀을 모두 잡으면서 '상위 팀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 돌풍을 지휘한 박철우 감독대행에겐 '매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5라운드를 5승1패로 마친 우리카드의 상승

세는 마지막 6라운드에라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우리카드는 지난 달 28일 KB손보에 대개피탈을 잡으며 6라운드 역시 5승1패로 마감하며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냈다.

박철우 대행이 지휘한 18경기 승률이 무려 77.8%(14승4패)다.

박 대행이 40대 초반의 많지 않은 나이여서 선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형님 리더십'으로 주전들의 역량을 높여 일구낸 값진 성과였다.

세터 한태준의 기를 살려 삼각편대인 하과엘 아라우조(등록명 아라우조)와 알리 하그파라스트(등록명 알리), 김지한의 공격력을 극대화했고, 미들블로커 듀오 이상현과 박진우가 포진한 중앙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여기에 출전 기회가 적었던 아웃사이드 히터 이시문과 정성규, 미들블로커 조근호를 조커로 승부처에 투입해 효과를 톡톡히 봤다.

박 대행은 KB손보의 하현용, 삼성화재의 고준용, IBK기업은행의 여요현까지 총 4명의 감독대행 중 정식 사령탑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가장 컸다.

구단이 박 대행의 승격과 외부 영입 중 둘 중 하나를 놓고 저울질해온 가운데 봄 배구 확정으로 박 대행에게 완전히 지휘봉을 맡기는 쪽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구단 관계자는 "정규리그가 끝나고 봄 배구 진출을 확정하면 만큼 감독인선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면서

"구단주님께 의향을 여쭙보는 등 감독 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in 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